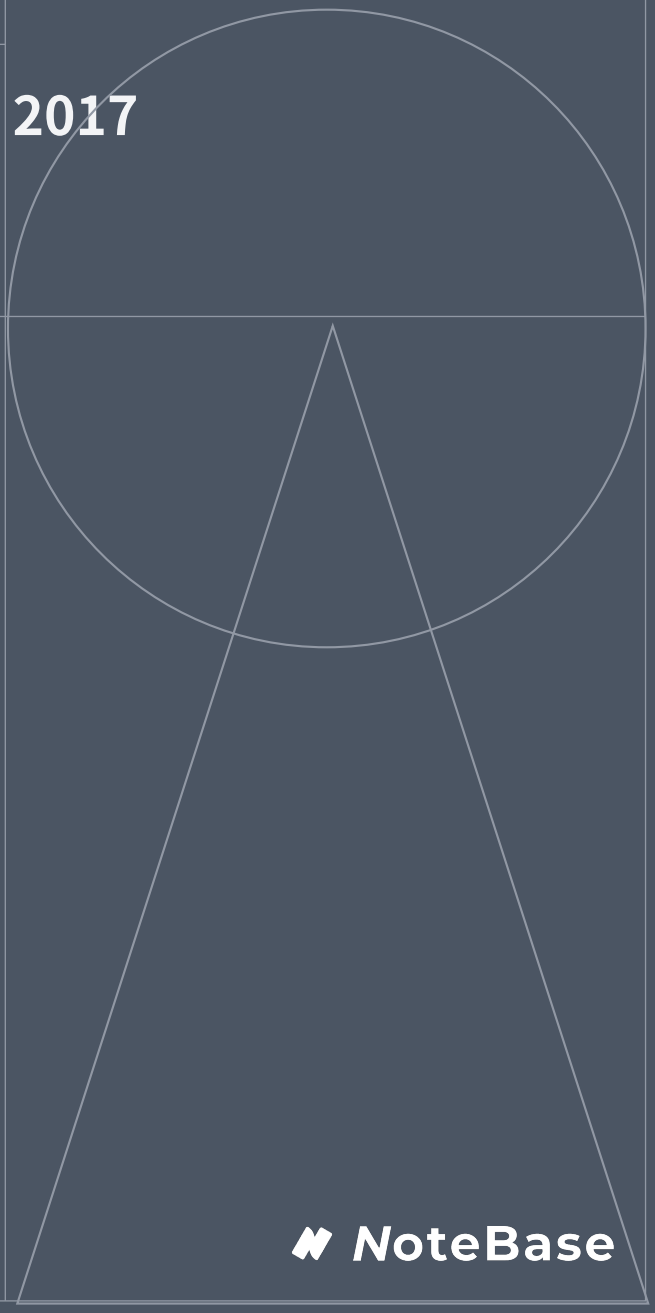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7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7

문 1.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법치주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볼 수 없다. 절대 왕정 시대의 법은 곧 왕의 의지를 의미하였고 중국의 법가사상은 법을 전제 군주의 통치 수단으로 보았다.
(나)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되므로, 법은 곧 국민의 뜻으로 보았다.

① (가)의 논리는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② (나)의 논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③ (가)는 자연법사상, (나)는 실정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정치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법의 내용이 정의로운지보다 법을 이용한 통치를 앞세우므로, 독재 정부도 법을 내세워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법을 권력을 제한하는 기준보다 통치자의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 보는 '법에 의한 지배'이다.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법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② X: (나)는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는 '법의 지배'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부당한 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은 법의 내용적 정당성보다 **실정법의 효력을 앞세우는 입장**과 연결된다.

③ X: 자연법사상은 국가가 만든 법보다 앞서는 **보편적 정의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정법사상은 국가가 제정하여 현실에서 시행하는 법의 효력을 중시한다. 이 문항의 대비에서는 법을 통치자의 의지로 보는 (가)가 실정법사상과,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나)가 자연법사상과 연결된다. 선지는 두 사상의 대응을 바꾸어 제시했다.

④ X: 합법성은 권력 행사가 법에 근거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지의 문제이고, 정당성은 그 권력의 근거나 행사 내용이 국민의 뜻과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문제이다. (가)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합법성의 외형을 갖추더라도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나)는 국민의 뜻인 법으로 통치자까지 구속한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함께 중시**한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62조① ㉠ 국무총리 ·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66조①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① ㉠은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맡는다.

② 국회는 ㉠ 또는 ㉡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상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④ 헌법 제52조, 제53조②, 제62조①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 국무총리와 ㉡ 국무위원은 헌법 제63조에 따른 **국회의 해임건의 대상**이다. 국회는 이들의 해임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국무총리이다.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의 구성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② O: 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 국무총리와 ㉡ 국무위원은 모두 그 대상이다. **해임건의**는 국회가 직접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③ X: ㉢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와 제77조의 요건에 따라 긴급명령이나 계엄 선포 등의 비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 해산권은 갖지 않는다**. 국가적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X: 제52조의 정부 법률안 제출권과 제62조제1항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발언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를 보여 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그러나 제53조제2항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 즉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요구하여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명)

지역	인구	국회의원 수
A시	89만 3,950	3
B시	29만 2,849	2

① 갑국의 선거구제는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다.

②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B시 유권자 1표는 A시 유권자 1표의 1/2의 가치가 있다.

④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법정주의,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시는 A시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가 적어, 주어진 인구를 기준으로 한 **1표의 가치는 더 크다**. B시 유권자 1표는 A시의 1/2이 아니라 **약 2배**의 가치를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 1명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선거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과 공약을 파악하기 쉽다. 표에서 A시가 3명, B시가 2명을 선출한다는 것은 각 시에 소선거구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이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다는 뜻이 아니다.

② O: 평등 선거는 각 유권자에게 같은 수의 표를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표의 가치도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표의 인구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하면, B시는 A시보다 인구에 비해 많은 의석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표가 대표 선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 투표 가치의 평등에 어긋난다.

③ X: 주어진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당 인구를 구하면 A시는 $\frac{893,950}{3} \approx 297,983$명, B시는 $\frac{292,849}{2} = 146,424.5$명이다. 더 적은 인구가 같은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B시에서 1표의 가치가 더 크다. 표의 가치는 의원 1명당 인구에 반비례하므로, B시의 A시 대비 투표 가치는 $\frac{2 \times 893,950}{3 \times 292,849} \approx 2.04$배이다. 따라서 '1/2의 가치'는 **'약 2배의 가치'**로 고쳐야 한다.

④ O: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의적 획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원 1명당 인구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지역 공동체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NoteBase

문 4. 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A, B 정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쟁점	A당 입장	B당 입장
헌법 개정 논의	시기상조이므로 반대	㉠ 개헌안 발의
㉡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	반대
㉢ ○○법 개정안 재의	㉣ 본회의 표결 처리	국민적 합의 필요

① ㉠은 국회 재적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② ㉡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 가능하다.

③ ㉢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④ ㉢이 ㉣을 통과하여 이송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도 국회가 헌법상 요건에 따라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헌법 개정안의 발의이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 개정이 제안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만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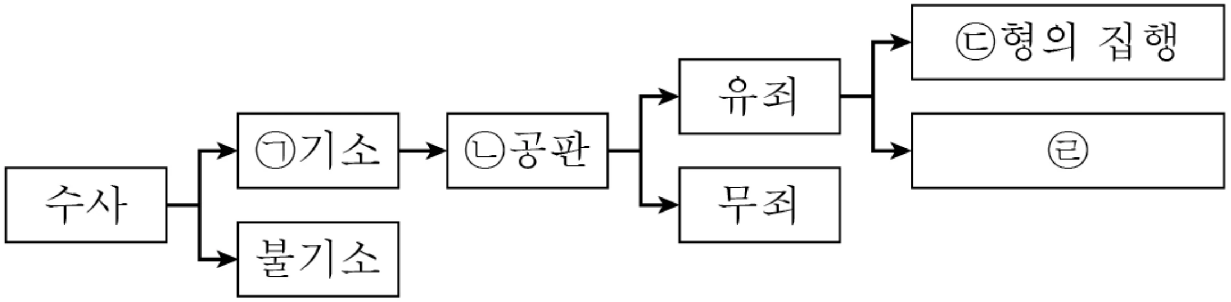
② X: ㉡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이다.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정책 국민투표의 실시 요건인 것은 아니다.

③ X: ㉢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다시 심의·의결할 법률안이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④ O: ㉣은 국회 본회의의 표결이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은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NoteBase

문 5. 그림은 형사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은 수사관이 할 수 있다.

② ㉡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③ ㉢단계에서의 지휘권은 판사가 갖는다.

④ ㉣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집행 유예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그림의 ㉣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법정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이 갈래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기소로,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소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② X: ㉡은 공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공판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소 전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보장된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X: ㉢은 형의 집행이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한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는 역할과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④ O: ㉣은 유죄 판단 이후 '형의 집행'과 갈라지는 위치이므로, 유죄가 인정되어도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는 ㉣에 해당하며, 무죄나 불기소와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6. 다음의 자료 수집 방법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항목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A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필요로 한다.	B
낮은 수거율과 무성의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	C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D

① A는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아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다.

②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도가 높다.

③ C는 문맹자에게도 실시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법이다.

④ D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서 개입될 우려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D는 기존 문헌이나 기록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법**이다. 양적·질적 연구 모두에 쓰이지만, 자료를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표에서 질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참여관찰법이다. 연구자가 대상 집단의 생활에 참여하면서 행동과 그 의미를 관찰하므로 자연스러운 맥락을 파악하기 좋지만, 연구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독립 변인을 조작하는 등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실험법**이다.

② X: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필요로 하는 B는 실험법이다. 독립 변인을 처치한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인과 관계를 검증한다. 이는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처럼 객관적인 관찰과 검증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방법론적 이원론은 인간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과학과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X: 낮은 수거율과 무성의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C는 질문지법이다.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답을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어렵다**. 조사자가 말로 질문하고 답을 듣는 면접법은 문맹자에게도 실시하기 용이하다.

④ O: 앞의 세 방법을 제외하면 D는 문헌연구법이며, 표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에도 부합한다. 문헌연구법은 기존의 문헌·기록·통계 자료 등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치화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와 기록의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수 있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일이면 수능이다. 종례시간에 ㉠내일 치르는 수능 시험 유의사항을 알려 주며 격려해 주시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다. ㉢고사장 확인까지 하니 이제야 실감이 났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 모두 서로 다른 ㉣대학, ㉤직장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겠지. ㉥막냇동생은 응원 선물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안아 주셨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여 힘내자!

① ㉠은 예기 사회화를 위한 담임선생님의 역할 행동이다.

② ㉡, ㉧은 성취지위이고 ㉥, ㉦은 귀속지위이다.

③ ㉢은 수험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④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 '아버지'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귀속 지위가 아니라, 자녀를 두면서 후천적으로 얻는 **성취 지위**이다. 가족 안의 지위라도 막냇동생처럼 출생으로 주어지는 지위와 아버지처럼 나중에 얻는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예기 사회화는 **앞으로 맡을 역할이나 처하게 될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미리 배우는 것**이다. 수능 유의사항을 알려 주는 ㉠은 학생들이 다음 날 시험 상황에 적응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지도이다. 이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담임선생님의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역할 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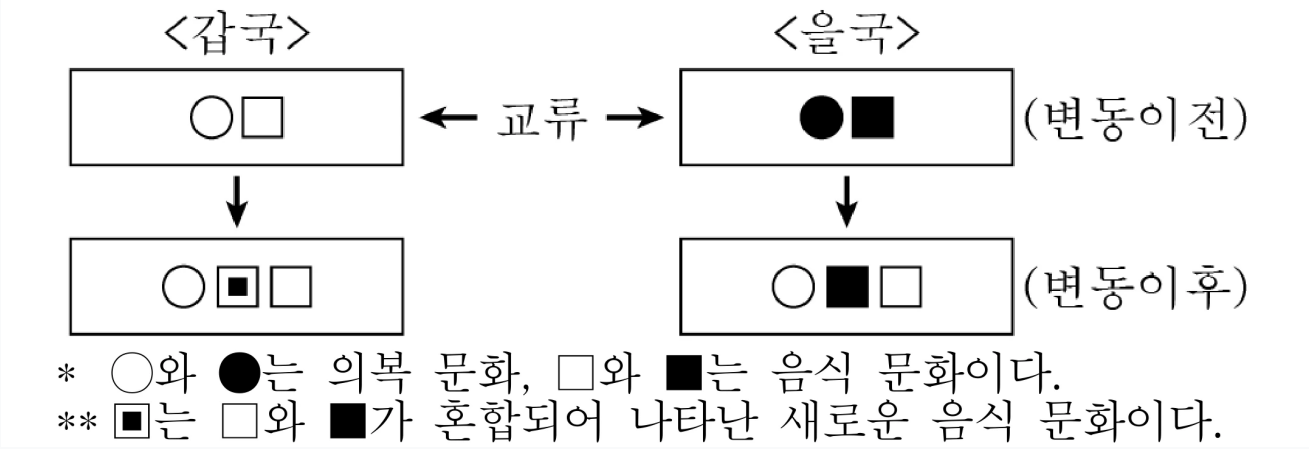
② X: 귀속 지위는 개인의 의사나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이고, 성취 지위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 등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는 지위이다. ㉡ 담임선생님과 ㉧ 수험생은 성취 지위이며, ㉥ 막냇동생은 출생에 따라 주어지는 귀속 지위이다. 그러나 ㉦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지위가 아니라 **자녀를 두면서 후천적으로 얻는 성취 지위**이다. 따라서 ㉥과 ㉦을 모두 귀속 지위로 묶은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③ O: 역할은 특정 지위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며, 역할 행동은 그 기대에 따라 개인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다. ㉢ 고사장 확인은 시험을 치를 사람이 응시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한 행동이므로 **수험생 지위에 따른 역할 행동**이다.

④ O: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화도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 대학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규범 등을 가르치므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직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등 경제 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구성원이 업무 규칙과 조직 문화를 배우게 하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구분 기준은 **사회화가 기관의 주된 설립 목적인지**이다.

NoteBase

문 8. 갑국과 을국이 교류한 이후 각국에서 나타난 문화 접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국의 의복 문화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② 갑국의 음식 문화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③ 갑국은 자문화의 요소들을 접변 이후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④ 을국의 음식 문화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갑국의 의복 문화는 교류 전후 모두 흰 원으로 표시되어 **기존 문화가 유지**된다. 자기 문화가 사라지고 외래문화로 대체되는 **문화 동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국의 의복 문화는 교류 전후 모두 흰 원으로 표시되어 변화 없이 유지된다. 문화 동화는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고 외래문화 요소로 대체**되는 현상이므로 갑국의 의복 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은 원이 흰 원으로 바뀐 을국의 의복 문화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② O: 갑국의 변동 이후 음식 문화에는 흰 사각형 안에 검은 사각형이 들어간 새로운 기호가 나타난다. 이는 갑국의 음식 문화와 을국의 음식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음식 문화가 형성**된 문화 융합이다.

③ O: 갑국의 변동 이후에도 원래의 의복 문화를 나타내는 흰 원과 음식 문화를 나타내는 흰 사각형이 모두 남아 있다. 새로운 음식 문화가 추가되었지만 **기존의 자문화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

④ O: 을국의 변동 이후 음식 문화에는 기존의 검은 사각형과 갑국에서 유입된 흰 사각형이 함께 나타난다. 두 음식 문화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유지한 채 함께 존재**하므로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표는 연도별 한부모 가구 수와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은? (단, 전체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는 표에 나타난 두 가지 유형만 있다.)

(단위 : 1,000가구, %)

	2000년		2005년		2010년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한부모 가구	871	6.09	1,042	6.56	1,181	6.81
부+미혼자녀	162	1.13	233	1.40	253	1.46
모+미혼자녀	709	4.96	819	5.16	928	5.35

* 비율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를 의미함.

① 한부모 가구에 속한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②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 수보다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③ 표의 모든 연도에서 '모+미혼자녀' 가구 수는 '부+미혼자녀' 가구 수의 4배 이상이다.

④ 2000년의 한부모 가구는 모두 2010년의 한부모 가구에 포함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2000년 6.09%에서 2010년 6.81%로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율이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표에서 증가한 것은 한부모 가구의 수이다. 한부모 가구에 속한 총인구를 알려면 가구마다 몇 명이 사는지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가구 수의 증가만으로 총인구의 증가를 판단할 수 없다**.

② O: 표의 비율은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두 가구 수가 같은 증가율로 늘었다면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2000년 6.09%에서 2010년 6.81%로 높아졌으므로, 한부모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보다 **더 높은 증가율로 늘었다**.

③ X: 2010년 '모+미혼자녀' 가구는 928천 가구이고, '부+미혼자녀' 가구는 253천 가구이다. 후자의 4배는 253 × 4 = 1,012천 가구로 928천 가구보다 많다. 따라서 2010년에는 '모+미혼자녀' 가구 수가 '부+미혼자녀' 가구 수의 **4배 미만**이므로, 모든 연도에서 4배 이상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표는 각 연도의 한부모 가구 수를 집계한 자료이며, **개별 가구가 계속 한부모 가구로 남았는지**는 보여 주지 않는다. 기존 한부모 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으로 바뀌고 새로운 한부모 가구가 생겨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구 수가 늘었다고 해서 2000년의 한부모 가구가 모두 2010년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결혼을 하였으나 ㉠갑이 딸 A를 출산한 뒤 이혼을 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재혼을 한 뒤 병과의 사이에서 아들 B를 출산하였고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병의 어머니 C는 시골에 홀로 살고 계신다. 어느 날 ㉢병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병의 재산은 채무 없이 부동산과 예금 7억이 있었다.

① ㉠에 의해 A는 행위 능력을 취득하였다.

② ㉡으로 인해 갑과 A와의 법률관계는 소멸된다.

③ ㉢으로 인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은 갑, A, B, C가 된다.

④ ㉣이 유효하다면 갑은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효한 유언에 따라 재산 절반을 장학재단에 주면, 상속인들이 나눌 재산은 3억 5천만 원이다. 배우자 갑과 자녀 A·B의 상속분 비율은 **3:2:2**이므로 갑은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A가 출생으로 취득한 것은 **행위 능력이 아니라 권리 능력**이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사람은 출생과 함께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3조). 행위 능력은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원칙적으로 19세로 성년에 이르면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는다(민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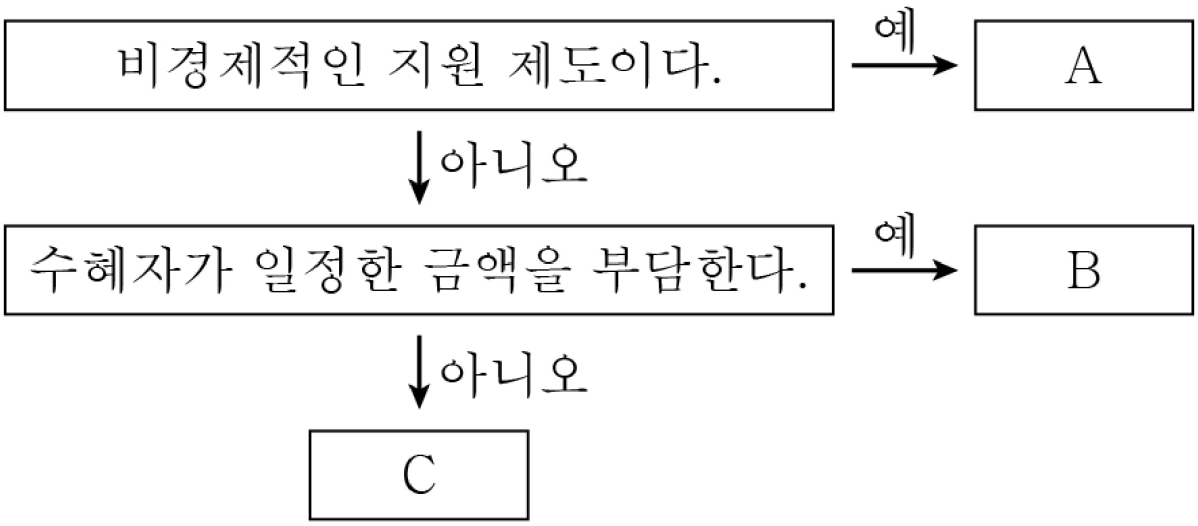
② X: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유지**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병은 배우자 갑의 친생자인 A를 입양하였으므로 갑과 A의 모자 관계는 유지된다. 종료되는 것은 친생부 을 및 그 친족과 A 사이의 친족관계이다.

③ X: 병의 직계비속인 A와 B가 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 갑은 이들과 공동상속한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A는 친양자이므로 병과 갑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B와 같은 순위로 상속한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어머니 C는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은 갑, A, B이다.

④ O: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한다. 유언이 유효하면 채무가 없는 재산 7억 원 중 절반인 3억 5천만 원은 장학재단에 유증되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갑, A, B가 상속한다. 같은 순위의 자녀 A와 B의 상속분은 같고,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므로 **갑:A:B의 비율은 1.5:1:1, 즉 3:2:2**이다(민법 제1009조). 갑의 몫은 $3.5 \times \frac{3}{7} = 1.5$억 원, 즉 1억 5천만 원이다.

NoteBase

문 11. A~C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① A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B는 보험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 수준이 결정된다.

③ C는 B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C의 사례로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C는 보험료 부담 없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므로, B인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비경제적인 지원 제도이다'에 '예'로 이어지는 A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아니오'로 이어지는 두 제도 중 수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B는 사회보험이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C는 공공부조이다.

① X: A는 상담·재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A가 아니라 사회보험인 B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킨다.

② X: B는 사회보험으로, 보험 급여 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정하는 민간 보험과 구별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 등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정하며, 보험 급여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제도별 지급 기준에 따라 제공된다.

③ O: C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수혜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므로, 보험료를 걷어 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B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X: 상담·재활·직업 소개는 현금 등의 경제적 지원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 A**의 사례이다. C인 공공부조의 사례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들 수 있다.

NoteBase

문 12. 표는 A국의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항목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저생계비(천원/월)	1,363	1,439	1,495	1,546
절대적 빈곤율(%)	6.4	6.4	6.0	5.9
상대적 빈곤율(%)	12.5	12.3	12.0	11.7

※ A국의 모든 가구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A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② 2013년은 2012년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

③ 2014년은 중위 소득의 25%와 최저생계비가 일치한다.

④ 2015년은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작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15년에는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이 5.9%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비율인 11.7%보다 낮다. 같은 가구들의 소득을 비교하므로, 더 적은 가구가 포함되는 **최저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절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중위 소득은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이다. 모든 가구는 4인 가구이므로 가구원 수 차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두 빈곤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

① X: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12.5%에서 2015년 11.7%로 낮아진다. 그러나 빈곤율은 특정 소득 기준 미만인 가구의 비율만 보여 주므로, **전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지는 알 수 없다**. 격차의 변화를 판단하려면 계층별 소득 분포를 보여 주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② X: 2012년과 2013년의 절대적 빈곤율은 모두 6.4%이다.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 수에 6.4%를 곱한 값이므로, **전체 가구 수를 모르면 빈곤 가구 수의 증감을 알 수 없다**. 전체 가구 수까지 같다면 빈곤 가구 수도 같지만, 표에는 전체 가구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X: 2014년의 절대적 빈곤율 6.0%가 상대적 빈곤율 12.0%의 절반이라는 것은 두 기준 미만에 속하는 **가구 비율의 관계**이다. 이것이 두 기준 소득 금액도 두 배 차이라는 뜻은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1,495천 원/월이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다는 점이며, 중위 소득의 25%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O: 2015년의 절대적 빈곤율은 5.9%, 상대적 빈곤율은 11.7%이다. 만약 최저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 이상이라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는 모두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에도 포함되므로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로는 절대적 빈곤율이 더 낮으므로 **최저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작다**.

NoteBase

문 13. 다음 커피 시장의 수요·공급표에 대한 <보기>의 진술 중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단, 시장에서 소비자는 갑, 을 2명뿐이다.)

가격(원)	갑의 수요량(개)	을의 수요량(개)	시장 공급량(개)
2,500	5	4	17
2,000	6	6	16
1,500	7	8	15
1,000	8	10	14

<보기>

ㄱ. 균형 거래량은 17개이다.

ㄴ. 균형 가격은 1,500원이다.

ㄷ. 가격이 1,000원일 때 초과 수요량은 3개이다.

ㄹ. 가격이 2,000원일 때 초과 공급량은 4개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장 수요량은 **같은 가격에서 갑과 을의 수요량을 합한 값**이다. 1,500원에서는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15개로 같고, 2,000원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4개 많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소비자가 갑과 을뿐이므로 각 가격에서 두 사람의 수요량을 더하면 시장 수요량이 된다. 균형은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이 같을 때 성립한다. 초과 수요량은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값이고, 초과 공급량은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뺀 값이다.

ㄱ X: 가격이 1,50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은 7 + 8 = 15개이고, 시장 공급량도 15개이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17개가 아니라 **15개**이다. 표의 공급량 17개는 가격이 2,500원일 때의 값이며, 이때 시장 수요량은 5 + 4 = 9개이므로 균형이 아니다.

ㄴ O: 가격이 1,500원인 행에서 갑의 수요량 7개와 을의 수요량 8개를 합하면 15개로, 시장 공급량 15개와 일치한다.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가격**이므로 균형 가격은 1,500원이다.

ㄷ X: 가격이 1,00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은 8 + 10 = 18개이고, 시장 공급량은 14개이다. 사고자 하는 수량이 팔고자 하는 수량보다 많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량은 3개가 아니라 18 − 14 = **4개**이다.

ㄹ O: 가격이 2,00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은 6 + 6 = 12개이고, 시장 공급량은 16개이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그 양은 16 − 12 = 4개이다.

옳은 진술은 ㄴ과 ㄹ이며, 두 번째와 네 번째 보기를 묶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가), (나) 사례에 대한 <보기>의 진술 중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가)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망고보다 바나나가 더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바나나가 망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나) 물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다. 하지만 물의 가격은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훨씬 낮다.
<보기>
㉠ (가)의 사례에서 바나나는 망고보다 희소성이 큰 재화이다.
㉡ (가)와 (나)의 사례에서 가격을 결정한 요인은 유용성보다는 존재량이다.
㉢ (나)에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인간에게 더 유용한 재화이기 때문이다.
㉣ 희소성은 재화의 존재량과 인간의 욕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바나나는 생산량이 더 많아도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면 망고보다 희소성이 클 수 있다. 희소성은 재화의 절대적인 양이나 유용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존재량과 인간의 욕구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가)에서 바나나는 망고보다 많이 생산되지만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는 바나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희소성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 X: 가격을 재화의 **존재량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가)에서는 더 많이 생산되는 바나나가 더 비싸므로 존재량이 적을수록 언제나 비싸다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역시 물과 다이아몬드의 유용성이나 존재량 중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X: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은 물보다 인간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비해 존재량이 적어 희소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하여 유용성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보다 풍부하여 가격이 낮다. 따라서 유용성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O: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재화가 부족한 정도**이다. 같은 양의 재화라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원하는 양이 늘어나면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화의 존재량뿐 아니라 그 재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도 함께 보아야 한다.

옳은 진술은 ㉠과 ㉣이며, 이는 ②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표는 한 기업의 X재 생산량 증가에 따른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만원)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추가 수입	10	10	10	10	10	10
추가 비용	7	6	6	7	11	13

① 총이윤은 생산량이 2개일 때와 3개일 때 같다.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평균 비용은 증가한다.

③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을 때 이윤은 최대가 된다.

④ 위의 사례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총이윤은 14만 원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생산량 0에서의 비용을 0으로 두면, 생산량이 4개가 될 때까지는 추가 수입이 추가 비용보다 커서 총이윤이 늘어난다. 5개째부터는 추가 비용이 추가 수입을 넘으므로, **4개 생산할 때의 총이윤 14만 원**이 최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은 생산량을 1개 늘릴 때 각각 늘어나는 수입과 비용이다. 표에서 총수입은 해당 생산량까지의 추가 수입을 합하여 구하고, 총비용은 생산량 0에서의 비용에 해당 생산량까지의 추가 비용을 합하여 구한다. 원문에는 생산량 0에서의 비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공식 정답 ④의 14만 원이 성립하는 전제에 따라 **생산량 0에서의 비용을 0으로 두고** 계산한다. 총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고, 평균 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① X: 2개 생산할 때 총수입은 20만 원, 총비용은 7 + 6 = 13만 원이므로 총이윤은 7만 원이다. 3개 생산할 때 총수입은 30만 원, 총비용은 7 + 6 + 6 = 19만 원이므로 총이윤은 11만 원이다. 따라서 총이윤은 같은 것이 아니라 **3개일 때 4만 원 더 크다**.

② X: 1개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은 7만 원이고, 2개 생산할 때는 $\frac{13}{2} = 6.5$만 원이다. 생산량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날 때 평균 비용이 낮아지므로, 생산량이 늘 때마다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평균 비용은 **3개까지 하락한 뒤 상승한다**.

③ X: 생산량 1~6개에서 평균 비용은 차례로 7만 원, $\frac{13}{2}$만 원, $\frac{19}{3}$만 원, $\frac{26}{4}$만 원, $\frac{37}{5}$만 원, $\frac{50}{6}$만 원이다. 따라서 평균 비용은 3개 생산할 때 약 6.33만 원으로 가장 작다. 그러나 이때 총이윤은 11만 원이고, 4개 생산할 때는 14만 원이다. **평균 비용 최소 생산량은 3개, 총이윤 최대 생산량은 4개**로 서로 다르다. 이는 초기 비용을 0으로 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초기 비용이 10만 원이면 평균 비용은 4개에서 최소가 되어 ③도 성립하므로, 원문에 제시되지 않은 초기 비용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④ O: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 총이윤의 증가분은 추가 수입에서 추가 비용을 뺀 값이다. 1~6개째의 이윤 증가분은 차례로 3만 원, 4만 원, 4만 원, 3만 원, −1만 원, −3만 원이다. 이를 누적한 총이윤은 3만 원, 7만 원, 11만 원, 14만 원, 13만 원, 10만 원이다. **5개째부터 추가 비용이 추가 수입보다 커져** 총이윤이 줄어들므로, 표의 범위에서 최대 총이윤은 4개 생산할 때의 14만 원이다. 초기 비용이 있으면 각 생산량의 총이윤은 이 누적액에서 초기 비용을 뺀 값이다. 따라서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량은 여전히 4개이지만, 최대 총이윤이 14만 원이라는 결론은 초기 비용을 0으로 두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한 달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곡물과 육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양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교역을 할 경우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단,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뿐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단위 : 톤)

	갑국	을국
곡물	10	20
육류	20	50

① 갑국은 육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② 곡물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③ 을국의 육류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곡물 2.5톤이다.

④ 곡물과 육류를 1:1의 비율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곡물 1톤을 생산할 때 포기하는 육류는 갑국이 2톤, 을국이 2.5톤이다. 따라서 갑국의 **곡물 생산 기회비용이 더 작아** 곡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표는 같은 노동량으로 한 달간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을 나타내므로, 한 재화 1톤의 기회비용은 다른 재화의 최대 생산량을 해당 재화의 최대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비교우위는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작은지**로 판단한다.

① X: 육류 1톤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곡물 $\frac{10}{20} = 0.5$톤, 을국이 곡물 $\frac{20}{50} = 0.4$톤이다. 육류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작으므로, 육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는 **을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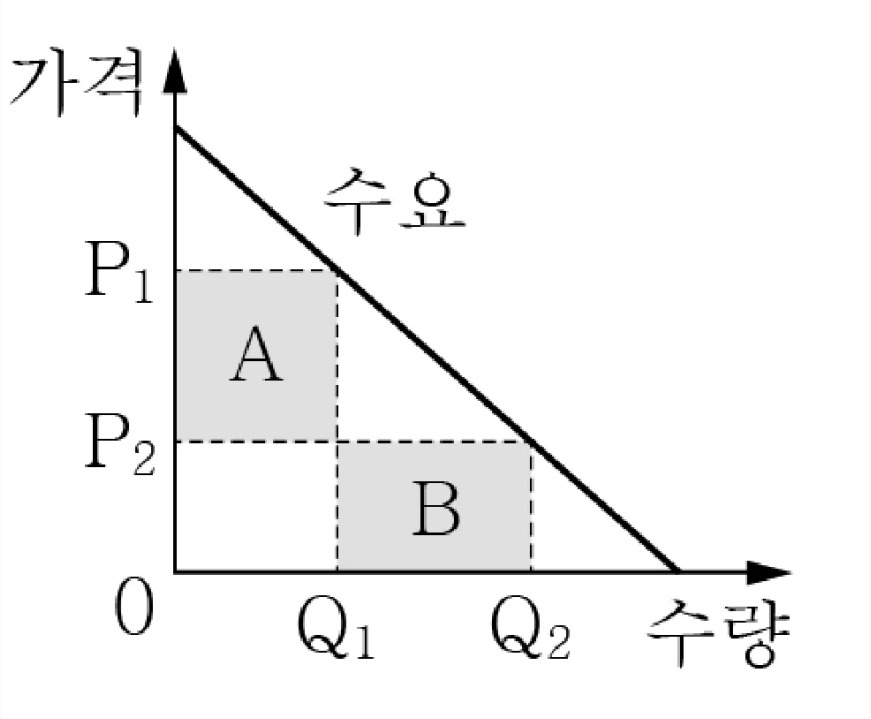
② O: 갑국은 곡물 10톤 대신 육류 20톤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곡물 1톤의 기회비용은 육류 $\frac{20}{10} = 2$톤이다. 을국은 곡물 20톤 대신 육류 50톤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곡물 1톤의 기회비용은 육류 $\frac{50}{20} = 2.5$톤이다. 같은 곡물 1톤을 생산할 때 **갑국이 포기하는 육류가 더 적다**.

③ X: 을국의 육류 1톤 생산 기회비용은 **곡물 0.4톤**이다. 선지의 2.5톤은 을국이 곡물 1톤을 생산할 때 포기하는 육류의 양으로, 생산하는 재화와 포기하는 재화를 뒤바꾼 설명이다.

④ X: 비교우위에 따라 갑국은 곡물을, 을국은 육류를 수출한다. 곡물과 육류를 1:1로 교환하면 갑국은 곡물 1톤을 수출하고 육류 1톤을 받는다. 그러나 갑국이 곡물 1톤을 생산하는 데 포기한 육류는 2톤이므로, 이 교환은 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양국 모두 이익을 얻으려면 **곡물 1톤당 육류를 2톤보다 많고 2.5톤보다 적게** 교환해야 한다. 그래야 갑국은 자체 생산 때 포기한 양보다 많은 육류를 받고, 을국은 곡물을 직접 생산할 때보다 적은 육류를 내주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17. 그림은 어느 제품의 가격을 P_2에서 P_1로 올렸을 경우의 판매 수입 변화를 보여준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 B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② B는 판매 수입의 증가를 의미한다.

③ A+B는 제품 판매 총수입이다.

④ A는 가격 인상의 기회비용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는 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 B는 판매량 감소로 잃는 수입이다. A > B이면 가격을 올렸을 때 **총수입이 증가**하므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의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이다. 가격이 P_2에서 P_1로 오르면 판매량은 Q_2에서 Q_1로 줄어든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인상 전에는 P_2Q_2, 인상 후에는 P_1Q_1이다. 두 직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A는 새로 얻는 수입, B는 잃는 수입이므로 총수입 변화는 A − B이다.

① O: A > B이면 가격 인상으로 얻는 수입이 판매량 감소로 잃는 수입보다 커서 총수입이 증가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아 가격 인상 시 총수입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 가격 변화 구간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② X: B는 기존 가격 P_2에 판매하던 수량 중 $Q_2 - Q_1$만큼을 더 이상 팔지 못해 **감소하는 수입**이다. 면적은 $B = P_2(Q_2 - Q_1)$이며, 수입 증가분은 B가 아니라 A이다.

③ X: A와 B는 각각 총수입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므로 두 면적의 합을 총수입으로 볼 수 없다. 가격 인상 후 총수입은 **A와 두 직사각형의 공통 부분을 합한 면적**이고, 인상 전 총수입은 B와 그 공통 부분을 합한 면적이다.

④ X: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포기하는 대안의 가치이다.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면서 기존에 얻을 수 있던 B만큼의 수입을 포기하므로, 이 그림에서 가격 인상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B**이다. A는 가격 인상으로 추가로 얻는 수입이다.

NoteBase

문 18. 표는 우리나라의 최근 4년 간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2015
경 상 수 지	50,835	81,149	84,372	105,939
상품수지	49,406	82,781	88,885	122,269
서비스수지	−5,214	−6,499	−3,679	−14,917
본원소득수지	12,117	9,056	4,151	3,572
이전소득수지	−5,474	−4,189	−4,985	−4,985

① 2013년 이후로 매년 수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

② 2014년은 2013년보다 해외여행이 감소하였다.

③ 표의 결과는 외환보유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표의 결과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2~2015년 모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 거래에서 받은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으므로, 이러한 외화의 순유입은 **외환보유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표에서 매년 증가한 것은 상품수지 흑자 규모이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이므로, **상품수지 흑자 증가만으로 수출 증가를 단정할 수 없다**. 수출이 줄어도 수입이 더 크게 줄면 흑자는 커질 수 있다. 수출액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수출이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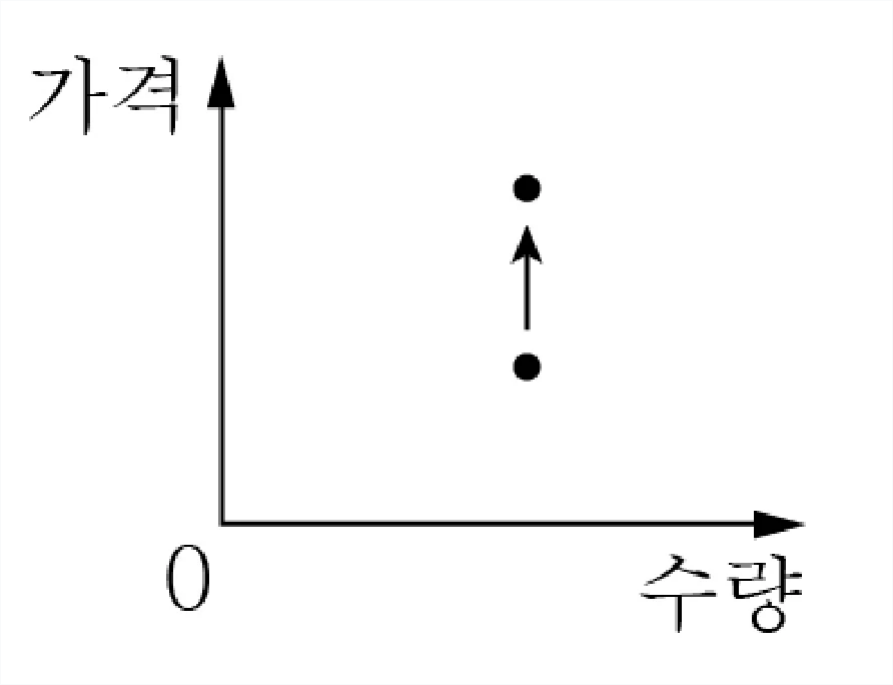
② X: 서비스수지는 2013년 -6,499백만 달러에서 2014년 -3,679백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줄었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여행뿐 아니라 운송 등 여러 서비스 거래에서 받은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이이다. 따라서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가 해외여행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행 관련 수입·지출이나 여행자 수가 따로 제시되지 않아 해외여행의 증감을 판단할 수 없다.

③ O: 경상수지는 2012년 50,835백만 달러, 2013년 81,149백만 달러, 2014년 84,372백만 달러, 2015년 105,939백만 달러로 모두 흑자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서비스·소득 등의 경상 거래에서 받은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외화가 순유입**되면 외환보유고를 늘릴 여지가 생기므로 외환보유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증가 요인이라는 의미이며, 외환보유고가 흑자액만큼 반드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 순유입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압박**한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 금액이므로, 달러 공급이 늘어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환율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표의 결과는 환율 상승이 아니라 하락 압력의 요인이다.

NoteBase

문 19. 그래프는 양배추 시장의 균형점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합을 <보기>에서 고르면? (단, 양배추는 모든 사람에게 열등재이고, 수요·공급 법칙을 따르며, 양배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보기>

㉠ 이상 고온 현상으로 양배추 수확이 급감하였다.

㉡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였다.

㉢ 채식 붐이 일어나 양배추를 끓는 물에 데쳐 쌈으로 먹는 사람이 늘었다.

㉣ 양배추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한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그래프는 **거래량은 그대로이고 가격만 상승**한 경우이다.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함께 일어나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에 미치는 서로 반대의 효과가 상쇄되어 거래량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이다. 균형점이 수직으로 위쪽으로 이동했으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았다. 공급 감소만 일어나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며, 수요 증가만 일어나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늘어난다. 두 변화가 함께 일어나 거래량 감소 효과와 증가 효과가 상쇄되면 그래프와 같은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 공급 감소: 이상 고온으로 수확이 급감하면 각 가격에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양배추의 양이 줄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는 가격을 올리고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수요 감소: 열등재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이다. 문제에서 양배추는 모든 사람에게 열등재이므로 실질 소득 증가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는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니며, 공급이 일정하다면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수요 증가: 채식 붐으로 양배추를 먹으려는 사람이 늘면 양배추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각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증가**한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수요 감소: 양배추가 질환을 유발한다는 보도는 소비자가 양배추 구매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양배추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는 가격을 높이는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니라, 공급이 일정할 때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낮추는 요인이다.

따라서 공급 감소 요인인 ㉠과 수요 증가 요인인 ㉢의 조합이 해당한다. 두 요인은 모두 가격을 올리며,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면 거래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조합은 ①에 제시되어 있다.

NoteBase

문 20. 표는 쌀과 닭고기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하는 어느 국가의 경제활동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3년이며,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증가율로 각각 측정한다.)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쌀	kg당 가격($)	10	15	17
	생산량(kg)	100	80	100
닭고기	kg당 가격($)	5	10	15
	생산량(kg)	40	40	60

* GDP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① 2014년의 물가지수는 150이다.

②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20%이다.

③ 2015년의 물가지수는 200이다.

④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20%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5년의 명목GDP는 2,600달러이고, 2013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GDP는 1,300달러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므로 **2015년의 물가지수는 2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명목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실질GDP는 기준년인 2013년의 가격으로 생산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실질GDP에는 쌀 1kg당 10달러, 닭고기 1kg당 5달러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지수이며, 경제성장률은 가격 변동을 제외한 생산량 변화를 나타내도록 전년 대비 실질GDP 증가율로 계산한다.

① X: 2014년의 명목GDP는 15 × 80 + 10 × 40 = 1,600달러이다. 실질GDP는 **2013년 가격을 적용**하므로 10 × 80 + 5 × 40 = 1,000달러이다. 물가지수는 $\frac{1,600}{1,000} \times 100 = 160$이므로 150이 아니라 160이다.

② X: 기준년인 2013년의 실질GDP는 10 × 100 + 5 × 40 = 1,200달러이다. 2014년의 실질GDP는 1,000달러이므로 경제성장률은 $\frac{1,000 - 1,200}{1,200} \times 100 \approx -16.7\%$이다. 쌀 생산량은 20% 줄었지만 닭고기 생산량은 그대로이므로, **쌀 생산량 감소율을 경제 전체의 성장률로 볼 수 없다**.

③ O: 2015년의 명목GDP는 17 × 100 + 15 × 60 = 2,600달러이다. 실질GDP는 10 × 100 + 5 × 60 = 1,300달러이다. 물가지수는 $\frac{2,600}{1,300} \times 100 = 200$이다. 이는 **2013년을 100으로 할 때의 물가 수준**이 200이라는 뜻이다.

④ X: 2015년의 실질GDP는 1,300달러이고 2014년에는 1,000달러였으므로, 경제성장률은 $\frac{1,300 - 1,000}{1,000} \times 100 = 30\%$이다. 증가분 300달러를 **전년인 2014년의 실질GDP**로 나누어야 하므로 20%가 아니라 30%이다.

NoteBase